천국문과 지옥문의 위치 찾기

(마23:13~15)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 (없음)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문과 지옥문 위치 찾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천국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피렌체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산조반니 세례당의 동쪽 문이, 이름이 '천국의 문'이라는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은 어디 있습니까?
피렌체에 있는 '천국의 문'을 만든 로렌초 기버르티의, 이 사람이 르네상스 때 사람인데 이 분이 만든 그 '천국의 문'이라는 데서 영감을 얻고,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았나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화를 말씀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지옥의 문'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인 하나를 찾게 되고 얻게 되면, 너희보다 더욱더 몇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베르티의 '천국의 문'은 피렌체에 있고, 로댕의 '지옥의 문'은 파리에 있다면 바리새인이 닫아버린 천국의 문, 바리새인이 활짝 열어 놓은 지옥의 문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리새인 주제에 감히 천국의 문을 닫을 수가 있으며 지옥의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이 닫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천국문과 지옥문이라면 분명히 우리 삶 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는데, 더군다나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속한 분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도대체 이 천국의 문은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거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문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지옥의 문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확실히 해야 될 테니까.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의 문에 들어선 거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너무너무 무지와 몰이해와 오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오해 속에, 무지 속에 묻혀 버렸기 때문에 굳이 바르게 말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힘주어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많은 오해를 떠안고 있는 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문과 지옥문의 Location, 위치 찾기를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천국문과 지옥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동선을 파악해요, 기쁨이 움직여가는 그 방향과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여간 무조건 기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에덴동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에덴동산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에덴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모든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서, 기쁨을 자기 스스로 어떤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빼내려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자마자 진짜 기쁨의 동산, 참 기쁨의 자리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가 막혀 버렸습니다.

자! 기쁨의 동산이었고 그걸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아주는 소리이니까 기쁨의 소리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아주니까.
하여간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이 기쁨의 동선과 관계가 있어서 기쁨의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옥이 지옥 되는 이유는 기쁨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라는 걸 생리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지옥이 지옥 될 리가 없지요, 기쁨을 원하는데 지옥에 갔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다운 거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오신 복음의 주역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요. 십자가가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모~든 관계가 다~ 검으로 끊어져야지 기쁨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 이정도 되면 감이 오실 거예요.
천국의 문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갖고 오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오신 주님께서, 검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화평대신에 불화를 요청하십니다.
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특징이 기쁨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동산의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할 때, 천국은 기쁨의 나라에요, 근데 그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갖고 오셨는데, 그분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시공간의 세계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관계를 끊어내라고 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Location을 확인할 수 있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부모와 자식 지간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복음의 주역이신 주님을 따르려면, 기쁨의 소리이신 주역이신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려라, 그리고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어딘지 아시겠지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 직전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라면 그 장사하는 가게에 가 닿기 전에, 마음이 닿기 전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관심의 대상들에 내 마음이 가 닿기 전에 천국의 문이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 자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자식 앞에 놓여 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 가 닿기 전에, 닿기 전의 위치에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같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자식에게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자마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고, 마음이 자식에게 가 닿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업과 내 마음사이에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자마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자마자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천국에서 완전히 기쁜 상태로 사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자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자들이 지옥행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거기서부터 기쁨을 찾으려 한 자들이고 그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지옥의 문 위에 있는 조각이었어요.
따로 독립된 조각을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의 문에 상단부에 보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갖가지 모양의 군상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은 곧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의 캐릭터를 설정해 주는 거라 이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세게 안에서 만나는 대상들 중에, '좋다 나쁘다'를 정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정해 놓고는 그곳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문제시 삼으십니다.
외식이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입은, 말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이끈 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끌었느냐? 좋은 것은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여기게끔 가르치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 시공간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천국의 문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열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끙끙거리는 엄마에게, 자식의 고민을 안고 온 엄마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나는 당신 자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 전에 자식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당신이 슬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해라,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기쁜 다음에 자식에게 가라 이것까지는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참 목사님이십니다.
'아!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의 자식이 꼭 대학입시에 합격하게 주세요!' 이건 다 바리새인입니다, 다~ 서기관 같은 자들,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몇 배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더 강렬하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대상들에게 몰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 앞에, 내 마음과 대상들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대상들에게 가 닿을 때 이미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 할 때,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천국문은, 기쁨은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상에 닿기 전에 하나님으로 기쁘고 싶다고 할 때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미 지옥문에 들어가 살고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과 마음이 벌써 얽혀버렸어요, 얽혀버렸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검으로.
그 얽혀 있는 관계를 끊어내고, 지옥문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천국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얽혀 있는 상태, 사업과 얽혀있고, 부부가 얽혀있고, 자식과 얽혀있고, 내 얼굴의 모양 미모와 얽혀있고 이 모~든 얽혀있는 걸 다~ 끊어내고, 마음이 내 얼굴에 닿기 전에, 쌍꺼풀이 없는 내 눈에 가 닿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기쁘고 나서 내 눈의 쌍꺼풀 문제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거기서 슬퍼하지 말고 마음이 닿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맞이해 보자 이겁니다.
십자가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이미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간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저희 집은 신학대학교가 있는 광나루 쪽이었고, 교회는 북악터널 너머에, 국민대학을 지나서 북악터널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장안동 면목동으로 해가지고 빙~ 청량리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미아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악터널로 가다 보면, 지금은 없어진 거 같습니다마는, 미아리에 그 아가씨들이 사람을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타고 가다 보면 그냥 다~ 그렇게 길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뭐 꼭 쇼윈도 같은 안쪽으로 한복을 입고 사람을 부르고 유혹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창녀가 돼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나한테서 기쁨을 뽑아 가세요, 나를 잘 기르면 기쁠 수 있습니다, 나를 서울대학 보내면 기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바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업이라는 게 몸 파는 아가씨가 돼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업을 잘~ 하면 인생이 기뻐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만 하면 일수 돈이라도 빌려서 요번에 요 일에만 투자하면 한몫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길가는 멋진 외제차를 보면서 '야! 저런 차 한번 타고 싶다'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고 순간에 유혹하는 겁니다.
'기쁠 수 있다, 차를 사면 기쁠 수 있다.'

이게 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야! 요번 사업에서 요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요게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 내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요것만 되면 기쁘겠다' 하면서 지옥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아내 때문에 기쁠 거라고요? 자식 때문에 기쁠 거라고요?
아니에요, 전부 지옥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나 때문에 기쁠 것이다, 나와 요렇게 되면 기쁠 것이다, 요것만 열심히 하면, 쌍꺼풀만 하면 얼굴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은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꼬시는 거예요.
쌍꺼풀 한번 갖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코도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계속해야 되잖아요.
참~ 속상해요, 예쁜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태어난 대로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사방을 뜯어 고치면서 얼굴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옥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언제 사업으로 기쁘겠다는 겁니까?
10년 속고 20년 속아 봤으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요.
자식? 무슨 수로 자식 때문에 기쁘겠다는 겁니까? 한두 살 때까지 기쁜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가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겠다고 들어갔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가르친 겁니다,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대하게 되는 모~든 대상과 내 마음 사이에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의 후손답게, 이 시공간에서 만나는 그 대상들이 나로 인해서 기쁘라고 부르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기뻐 보겠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모든 자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마음이 닿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마음이 가 닿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쁘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보고 하늘 보는 자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과 지옥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습성 상 지옥문에 들어가 있거나 지옥문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이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천국 문으로 향하고 마음이 하늘로 향해서 천국의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